

제주 한국어 음상 강화형 반복 부사어 연구

강석한

(건국대학교)

Kang, Seokhan. (2018). A study of emphatic adverbial reduplication in Jeju Korea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6(3), 89-116. It is argued that adverbial reduplication in Jeju Korean intensifies the sound effect through the template extension and rhythmic realization. Two types of reduplication (total and alternative) have been investigated, with consideration give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input and output as well as between output and output. To accelerate the sound effect in the total reduplication, the consonantal and feature addition, and vowel alternation have been used, resulting in emphatic forms as the output patterns. The alternative-reduplication pursues Obligatory Contour Principle (OCP) between the base and the reduplicant against OO-Identity. As a result, the OCP constraint caused the sound effect between the base and the reduplicant, using the asymmetry of f0 and duration. The final pattern of the emphatic reduplication involved adding 'lak(lang)' to the second emphatic reduplication with the liquid coda. The study implies that the alternative forms in the adverbial reduplication of Jeju Korean pursue the melody effect, using markedness constraints.

주제어(Key Words): 유사 중첩(alternative reduplication), 완전 중첩(total reduplication), 제주 한국어(Jeju Korean), 제약(constraints), 최적성 이론(optimality theory), 강조형 상징어(emphatic ideophones)

1. 서론

중첩(reduplication)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언어 형식이 반복하여 나타나는 언어 현상이다. 이렇게 형성된 단어를 첩어(이희승, 1955; 채완, 1986), 반복합성어(이익섭, 1965), 혹은 반복 복합어(이익섭, 1982; 박동규, 2000)라고 한다. 한국어에서 중첩 반복어는 명사(예. 가지가지), 대명사(누구누구)등의 체언에 나타나거나, 상태(길쭉길쭉)나 동작(파닥파닥)을 나타내는 부사어에 드러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 한국어의 의성 의태어 반복 부사어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형태론적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중첩어는 입력형(input)과 출력형(output)사이에, 혹은 출력형내의 어기(base)와 중첩사(reduplicant) 사이에 형태론, 음운론, 그리고 음성학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고, 이 요소들이 대상 언어의 문법을 잘 드러내준다 (McCarthy & Prince, 1995). 중첩어에 대하여 범 언어적으로 많은 언어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Marantz, 1982; McCarthy & Prince, 1995; Boersma, 2000; Flemming, 1996; Balle, 2017), 한국어에서도 질적 양적으로 상당한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다 (이희승, 1955; 이익섭, 1982; 채완 1986; 박동규 2000).

한국어의 한 방언에 속하는 제주 한국어(Jeju Korean)는 비록 UNESCO가 지정한 소멸 진행중인 언어(endangered language) 가운데 하나로 지정되어 있지만, 아직도 70대 이상의 제주어 원어민들 발화에서는 중첩어가 자주 발견된다. 이런 이유로 고유 한국어의 음상 강화형 중첩어의 특징을 비교적 소상하게 관찰할 수 있다. 제주 한국어에서는 서울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서술성 어기가 반복되는 단어들은 주로 상징어인 의성어 의태어가 많이 사용되며, 반복되는 형태에 따라서 완전 중첩어, 유사(유음) 중첩어, 그리고 부분중첩어로 구분을 한다.

(1) 중첩어 유형

- (가) 전혀 아무런 형태상의 변동이 없이 반복되는 경우 (완전 중첩어)
- (나) 구성 성분의 일부가 중첩어에 변동을 일으키며 반복되는 경우 (유사 중첩어)
- (다) 어기의 부분적 구성성분이 중첩어에 반복하여 나타나는 경우 (부분 중첩어)

(가)는 ‘조작조작, 줄락줄락’과 같이 완전히 동일한 어기(base)의 반복을 하는 완전 중첩어를 의미하고, (나)는 ‘얼룩달룩, 얼통달통’과 같이 어기와 중첩어 사이에 일부 변화를 겪는 유사 중첩어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는 ‘아글, 슻락, 우작’등의 어기에 ‘락, 지’가 복사되어 ‘아글락, 슻로록, 우지작’등의 부분 중첩어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지금까지는 이 세 가지 중첩어 유형에 대하여 서울 한국어(이익섭, 1982; 남기심, 고영근, 1993; 채완, 1986)뿐만 아니라, 제주 한국어(강공택, 1986; 강석한, 2008)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런 외적으로 구분하는 단순한 유형 구분은 의성어 의태어 반복 중첩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간과할 수 있다.

(2) 자웃자웃 지드리어라.

답고냥은 비릉비릉하다.(김영돈, 1965)

이 ‘자웃자웃’ 의태어 중첩어는 ‘자울자울’ 혹은 ‘자울락자울락’이라는 음상 강화형 중첩

어들을 만들어 낸다. ‘비롱비롱’이라는 반복 부사어는 ‘비롱베롱’, 혹은 ‘베롱베롱’이라는 변이형들을 만들어 내는데, 이 음성 강화형 중첩어(emphatic reduplication)는 완전 반복어, 유사 반복어, 부분 중첩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한 어간에서 출발한 중첩어가 완전, 유사, 부분 중첩어를 모두 거치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인 형태상 분류 방법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성 강화형 중첩어가 아직도 풍부하게 남아있는 제주 한국어의 의성어 의태어 반복 부사어를 대상으로, 유사 중첩어나 부분 중첩어가 완전 중첩어의 또 다른 형태의 음성 강화 현상임을 입증하고, 이 강화 현상은 출력형-출력형 관계에서만 아니라 입력형-출력형 관계에서도 작동함을 입증하려고 한다.

2. 제주 한국어의 중첩어 특징

제주 지역어는 서울 지역어와 비교하여 의성어 의태어가 주로 반복 부사어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는 형태상 공통점이 있지만, 변이형 형성에서는 제주어가 압도적으로 풍부하다. 강석한(2010) 연구에 의하면, 제주어에 나타나는 1741개의 중첩어중 74%가 변이형을 가지며, 서울지역어는 전체 532개중 43%만이 변이형을 갖는다. 변이형 빈도수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제주어는 단일 반복 부사 변이형을 갖는 중첩어가 71%, 2회 변이형은 17%, 3회 변이형은 6%, 4회 이상이 3%인 반면에, 서울어는 단일 변이형이 80%, 2회 변이형은 18%이며, 나머지는 2%에 불과하다. 즉 제주 지역어는 서울 지역어에 비하여 변이형 회수가 더 많이 나타난다. 이는 70대 이상이 사용하는 토박이 제주 한국어인 경우는 사전에 기반을 둔 서울 표준어 교육의 영향을 덜 받았고, 따라서 표준 어휘 개념 정립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들이 사용하는 일상용어가 비교적 다양한 중첩어 변이형들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강정희(2005)의 지적처럼 원래 존재하던 제주 한국어에 육지부와의 교류가 활발해짐으로써 원 제주어와 유사한 외래 변이형들이 생기고 공존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변이형들은 형태론적 틀내에서 수의적 조건(optional condition)에 의한 이형태로 규정되었고(현평효, 1985), 단순한 형태상의 유형 분류만이 이루어졌다(강광택, 1986; 강석한 2010). 그러나 서울 한국어에 비하여 이러한 형태론적 변이형들이 왜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도출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도출에는 어떤 기제가 작용하는지가 연구되어 있지 못하다.

서울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제주 한국어에 나타나는 반복 부사어들은 의성어, 의태어등이 동일한 어기(base)와 중첩사(reduplicant)의 반복 형식을 이용하여 음성 강화를 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때 어기와 중첩사의 동일형인 경우(완전중첩어)와 다른 경우(유사 중첩어)가 나타난다.

(3) 어기-중첩사 동일형 (완전 중첩어)

질강질강 지락지락 으상으상
오막오막 즐락즐락 슬강슬강
비롱비롱 포롱포롱 후롱후롱
능글능글 올근올근 수왕수왕
므랑므랑 발탕발탕 솔랑솔랑

(4) 어기-중첩사 이형태 (유사 중첩어)

와삭바삭 어숫비숫 어듭더듭
심숭삼숭 어쩍저쩍 실룩셀룩
오글랑다글랑 여부룩스부룩
흥창망창 어장바장 월랑발랑

(3)과 같이 어기와 중첩사가 동일형태로 반복되는 것을 단순 반복 부사어라고 하고, (4)처럼 어기와 중첩사가 독립된 구성성분으로 구분되고, 두 형태가 유사한 다른 형태를 나타내는 경우 유사(유음) 반복 부사어라고 따로 구분하여왔다. 전술한 것처럼 이런 외적으로 구분하는 단순한 유형 구분은 의성어 의태어의 반복 중첩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간과할 수 있다. 제주어에 나타난 반복 중첩어를 입력형어간과 출력형 어기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출력형내의 어기와 중첩사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음상강화 기제를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제주 중첩어는 다양한 변이형이 특징이다.

(5) 요 산중에 놀던 나무야 와삭와삭 깨여지라. (제주도, 2009)

(요 산중에 놀던 나무야 와삭와삭 쪼개어지라)

‘와삭와삭’이 기본적인 중첩어로 보는 이유는 이 부사어가 어간 ‘와삭’에서 출발하고 있고, 어간 ‘와삭’은 여러 변이형인 ‘바삭’이나 ‘와상’보다 ‘작’의 기본적인 의미로 제주어 사전(박용후, 1988, 송상조, 2007, 제주도, 2009)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6) 와삭: 약간 단단하고 깨지기 쉬운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 (박용후, 1988).

어간 ‘와삭’의 입력형이 출력형의 어기인 ‘와삭’과 중첩사 ‘와삭’의 합성을 통하여 ‘와삭와삭’이라는 의태어 중첩사를 형성한다. 그리고 2차, 3차 중첩어 변이형들이 생겨난다.

(7) 와삭와삭 와삭바삭 와삭와썩 와상바상

이러한 변이형들은 다음과 같은 사전적인 의미를 지닌다.

- (8) 외삭외삭: 그릇 따위가 깨지는 소리를 흉내낸 꼴
- 외삭바삭: 사기 그릇따위를 사정없이 부술 때 나는 소리
- 외썩외썩: 외삭외삭의 강조형
- 외상바삭: 외삭바삭의 변이형

송상조(2007)에 의하면 이 ‘외삭외삭’이라는 반복 부사어는 ‘외삭바삭’, ‘외썩외썩’, ‘외상바삭’이라는 반복어 이외에도 ‘바삭바삭’, ‘부삭부삭’, ‘푸삭푸삭’, 혹은 ‘브삭브삭’과 의미상 연결되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외삭’이라는 어간에서 도출되는 음성강화형 반복 부사어는 최소 4단어에서 최대 10단어까지 변이형들이 생성된다. 이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지만 음상의 정도가 다른 중첩어 변이형들은 ‘완전 중첩어’, ‘유사 중첩어’, ‘부분 중첩어’의 여러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음성 강화형 중첩어의 변화형이 입력형과 출력형 사이에, 혹은 출력형과 출력형 사이에 어떤 특정한 기제가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음성 강화형 중첩어는 외형적인 형태론적 측면에서 완전 중첩어, 부분 중첩어, 유사 중첩어로 구분하는 방법은 의미가 없으며, 이러한 의성 의태어 반복 중첩어를 생성하는 과정에서의 음성 강화 기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입력형-출력형 이형태이면서 출력형내의 어기-중첩사 동형태인 완전 중첩어를 대상으로, 4장에서는 입력형-출력형 동형태이면서 출력형내의 어기-중첩사 이형태인 유사 중첩어를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음성 강화 중첩어가 취하는 전략을 음운 현상으로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적성 이론을 적용하여 입력형-출력형과 출력형-출력형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6장에서는 이런 논의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사용한 반복 부사어 중첩어들은 현용준(1980), 현평효(1962; 1985), 강공택(1986), 제주도(2009), 송상순(2007)등과 본 연구자가 직접 채집한 음성 자료를 참고할 것이다.

3. 음성 강화형 완전 중첩어

제주 한국어의 반복 부사어의 완전 중첩어는 어간 입력형과 어기 출력형을 달리하지만, 출력형에서 어기와 중첩사를 동일하게 한다. 입력형과 출력형의 이형태는 자음이나 모음에 나타날 수 있고, 음절에 나타날 수 있다. 다음의 자료는 완전 중첩어의 변이형들이다.

- (9) 외랑외랑 과랑과랑
- 외삭외삭 바삭바삭

어정어정	어장어장
폴딱폴딱	폴짝폴짝
잘락잘락	자울락자울락

‘별써 와랑거렘쨌’(연구자 채집)의 문장에서 보듯이 어간 ‘와랑’은 음상 강화를 위하여 출력형 어기인 ‘와랑’ 반복을 통하여 ‘와랑와랑’이라는 중첩어를 생성한다. 그런데, 이 ‘와랑와랑’이라는 중첩어는 또 다른 출력형 중첩어를 생성한다. 즉, ‘와랑과랑’이라는 입력형 어기인 ‘와랑’과 출력형 어기인 ‘과랑’과의 다른 형태를 취하고, 동시에 출력형내의 어기인 ‘과랑’과 중첩사 ‘과랑’이라는 동일 형태인 ‘과랑과랑’이라는 출력 과정을 거쳐서 더 강력한 음상 강화를 꾀한다. 이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 ‘와랑’ 거리다.

어간 ‘와랑’ (입력형) → 어기 ‘와랑’ (출력형)

1차 중첩 어기 ‘와랑’ (입력형) → 중첩사 ‘와랑’ (출력형)

어기 ‘와랑’ + 중첩사 ‘와랑’ = ‘와랑와랑’ (완전중첩어)

2차 중첩 어기 ‘와랑’ (입력형) → 중첩사 ‘과랑’ (출력형)

출력형 어기 ‘와랑’ ≠ 출력형 중첩사 ‘과랑’

어기 ‘와랑’ + 중첩사 ‘과랑’ = ‘와랑과랑’ (유사중첩어)

3차 중첩 어기 ‘와랑’ (입력형) → 중첩사 ‘과랑’ (출력형)

입력형 어기 ‘과랑’ = 출력형 중첩사 ‘과랑’

어기 ‘과랑’ + 중첩사 ‘과랑’ = ‘과랑과랑’ (완전중첩어)

이 어기의 입력형과 출력형이 다른 경우, 혹은 출력형에서의 출력형 어기와 중첩사가 동일한 경우가 완전 반복 부사어에 속한다. 이런 유형의 반복 부사어는 입력형 어기와 출력형 어기 전환 과정에서 음운 교체 및 음절 교체를 통하여 음상 강화를 꾀한다고 볼 수 있다.

입력형과 출력형 관계에서 완전 중첩어가 음상 강화를 꾀하는 경우는 출력형 어기의 자음과 모음에 각각 변화를 준다. 연구자의 제주어 반복 부사어 자료중 1678 어휘의 완전 중첩어 조사에 의하면 입력형 어간과 출력형 어기사이의 모음 변화를 수반하는 모음 변이형이 1022개, 자음 첨가등을 통한 자음 변이형이 368개가 있으며, 성문자질 변화(격음화, 경음화)를 통한 반복부사어는 288개로 파악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음상 강화를 꾀할 때 ‘모음 변화 >> 자음 변화 >> 자질 변화’ 순으로 압력형과 출력형 사이에 이형태를 취함으로써 완전 중첩어 변이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3.1. 자음 교체

자음을 통한 입력형-출력형 어기 교체형은 일정한 문법적 형태를 지닌다. 자음을 통한 변이형은 입력형 어기 한 음절에 두음및 말음 첨가(혹은 탈락)를 통하여 자음 자체가 교체되는 자음 변이형과, 성문 자질의 교체를 통하여 경음화와 격음화를 유발시키는 자질 변이형을 가진다.

- (11) 동골동골 동울동울 동쿨동쿨 동쿨락동쿨락

이 반복부사어는 ‘동골동골’이나 ‘동울동울’ 둘 중의 하나를 기본으로 볼 수 있다. 제주어 사전에 의하면 ‘동골동골’을 기본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12) 동골동골: 자그마한 열매 따위가 둥근 꼴로 많이 붙어 있는 꼴. (송상조, 2007).

‘동골동골 >> 동울동울’로 진행되는 것은 ‘두자음 탈락’, ‘동골동골 >> 동쿨동쿨’로 교체되는 것은 ‘격음화’, 그리고 ‘동쿨동쿨 >> 동쿨락동쿨락’은 부분중첩(‘ㄹ’ 복사) 및 완전중첩(어기와 중첩사)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혹은 ‘동울동울’을 기본형으로 본다면 ‘동울동울 >> 동골동골’로 진행되는 것은 ‘두자음 첨가’, ‘동골동골 >> 동쿨동쿨’은 ‘격음화’, ‘동쿨동쿨 >> 동쿨락동쿨락’은 부분중첩 및 완전 중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교체는 음성 강화를 위하여 ‘형판길이(template length)’와 ‘리듬감(rhythmic sense)’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형판 길이는 두자음 교체 및 말음 교체, 그리고 리듬감 구현은 모음 교체와 관련 있다.

3.1.1. 두자음 교체

입력형 어기에 일부 음절 두음 자리에 자음을 첨가(혹은 탈락)함으로써 출력형 어기를 교체한 다음, 어기와 중첩사 사이의 어기를 반복하는 경우이다. 이 반복되는 완전 중첩어는 입력형 중첩어와 출력형 중첩어 사이에 MAX BR 제약보다 유표 제약과 MAX IO 제약이 상위에 위치한다. 이런 유형의 중첩어는 입력형과 출력형 어기 사이에 \emptyset : /k/, \emptyset : /h/, \emptyset : /p/ 등의 비대칭을 이루고, 이후 출력형내의 어기와 중첩사 사이에 /k/: /k/, /h/: /h/, /p/: /p/ 사이에 대칭을 이룬다.

- (13) \emptyset : /k/
- | | |
|------|------|
| 은질은질 | 근질근질 |
| 동울동울 | 동골동골 |
| 방웃방웃 | 방긱방긱 |

오실오실	고실고실
을강을강	글강글강
올강올강	플강플강
와랑와랑	과랑과랑

(14) \emptyset : /h/

어억어억	허억허억
우르릉우르릉	호르릉호르릉
우락우락	후락후락

(15) \emptyset : /p/

와삭와삭	바삭바삭
와씩와씩	와씩바씩
자울락자울락	자불락자불락
와상와상	와상바상

유의할 사항은 두자음에 교체되는 음소가 주로 ‘유기 평음’이라는 점이다. 한국어인 경우 음향학상 어두에 구현되는 유기 평음은 약 54ms로 알려져 있고(이경희, 정명숙, 2000), 제주어인 경우도 65ms라고 보고하고 있다(강석한, 2010). 확실한 점은 유기평음은 VOT라고 알려진 구간길이가 유기 격음보다는 작지만 경음보다는 길다는 점이다. 두자음 교체는 구간길이 대비를 통한 음상 강화를 이루는데, 이는 어두가 무자음(\emptyset)인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기 첫 음절인 경우 자음 길이는 당연히 0 ms 이기 때문이다. 어두음절의 두자음 교체는 형판 길이의 변화를 가져온다.

3.1.2. 자질 교체

자질 탈락형은 평음화로 나타나고, 자질 첨가형은 경음화와 격음화로 나타난다. 경음화는 기본형 반복 부사어의 한 음절이 평음 저해음에 [+tense] 자질을 부여하고, 나머지 음절에는 평음 저해음이 입력형 그대로 존재한다. 평음화는 그 반대로 [+tense] 자질 탈락에 기반을 둔다. 자질교체 완전 중첩어 변이형은 출력형에 경음 저해음과 평음 저해음이 대조를 이루게 된다.

(16) /p/: /p’/

듬북듬북	듬뵙듬뵙
반질반질	뵙질뵙질

(17) /k/: /k'/

구들구들	꾸들꾸들
구박구박	꾸박꾸박
등긏등긏	등긏등긏
디각디각	디각디각
딛근딛근	딛근딛근

(18) /t/: /t'/

폰똥폰똥	푼똥푼똥
질똥질똥	질똥질똥
그닥그닥	그딱그딱

(19) /c/: /c'/

조글조글	쪄글쪄글
움직움직	움쩍움쩍
살작살작	살쩍살쩍
빅작빅작	빅쩍빅쩍

격음화도 경음화와 비슷하지만, 격음화는 주로 첫음절에서만 발생한다. 즉, 반복 부사어의 첫 번째 음절의 평음 저해음에 [+asp] 자질을 부여하여 격음화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두 번째 음절에는 평음 저해음이 입력형 그대로 존재한다. 따라서 출력형에는 격음 저해음과 평음 저해음이 대조를 이루게 된다.

(20) /p/: /p^h/

벨롱벨롱	펠롱펠롱
빈직빈직	핀직핀직
부삭부삭	푸삭푸삭
부작부작	푸작푸작

(21) /c/: /c^h/

잠방잠방	참방참방
즈근즈근	츠근츠근
줄락줄락	출락출락

경음화의 [+tense] 자질과 격음화의 [+asp] 자질을 공통적으로 묶는 것은 음향학적으로 [H] 자질이다. Silva(2006)는 서울 지역어에서 경음 저해음과 격음 저해음은 [stiff] 자질로 구현된 [H] 성조를 지닌다고 주장 하였다. 제주어인 경우도 경음 저해음과 격음 저해음은 동일한 [H] 자질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두 음의 기본 주파수가 평음 182 Hz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격음 275 Hz, 경음 242 Hz (여성인 경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강석한, 2010). 확실한 점은 서울어이건 제주어이건 간에 한국어에서 격음과 경음의 기본주파수는 평음보다 월등히 높다.

3.1.3. 말음 교체

입력형 어기의 한 음절 말음 자리에 자음을 교체함으로써, 출력형 어기의 한 음절 종성에 자음을 삽입함으로써, '모라(μ)' 효과를 통한 음상(sound image) 강화를 꾀하고 있다. 말음 변화를 통한 교체형에는 \emptyset : /l/, \emptyset : /m/ 등이 있다.

(22) \emptyset : /l/

터닥터닥	털닥털닥
휘끌휘끌	훤끌훤끌
휘딱휘딱	훤딱훤딱
타그락타그락	타글락타글락
자락자락	잘락잘락
소랑소랑	솔랑솔랑
조근조근	졸근졸근
머쓱머쓱	멀쓱멀쓱
어룩어룩	얼룩얼룩
뎡그랑뎡그랑	덴글랑덴글랑

(23) \emptyset : /m/

ㄱ막ㄱ막	금막금막
조막조막	죤막죤막
고비고비	곰비곰비

이 말음 교체형 완전 중첩어는 대부분 '/l/', '/m/'을 취하는데 이는 모라와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언어에서 음절말 위치에는 비음(ㄱ, ㄴ, ㅇ), 측음(ㄹ), 평파열음(ㄱ, ㄷ, ㅂ)만이 올 수 있다. 제주어의 음상 강조형 반복 부사어에서는 말음이 주로 비음과 측음인 /ㅇ/, /ㄱ/, /ㄹ/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son] 자질을 요구하는 말음

인 경우 운율적인 모라(μ)제약이 개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라는 전통적으로 음절에 대한 양의 단위로 정의되어지는데 (Hyman, 1985; Hayes, 1989), Hayes(1989)는 음절은 최대한 두 모라만을 가질 수 있다는 두모라제약(bimoraic constraint)를 제안했다. 한국어에서 모음은 모라를 갖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없지만, 말음이 모라를 갖는지에 대하여는 여러 주장이 존재한다 (Kang, 1992). 그러나, 의성어와 의태어인 경우 음절말 종성 자음은 모라를 가진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Lee, 1992). 제주어의 음성강화 반복어 관찰에 의하면, 종성자음이 모라를 갖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종성 자음중 공명음, 특히 측음 ‘/ㄹ/’은 운율적인 효과가 탁월하여 더 선호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4)

터닥터닥 /CV CVC CV CVC/	→	털닥털닥 /CVC CVC CVC CVC/
1 11 1 11		11 11 11 11
μ $\mu\mu$ μ $\mu\mu$		$\mu\mu$ $\mu\mu$ $\mu\mu$ $\mu\mu$

3.2. 모음 교체

입력형 어간과 출력형 어간의 모음 교체를 통한 중첩어는 ‘전설-후설’ 대조와 ‘저모음-고모음’ 교체를 통하여, 풍부한 변이형들을 생산한다. 이는 터키어나 일본어들에 보이는 음성 강화 반복어의 형태와 유사하다.

정승철 (1998)은 70대 이상의 제주 노년층에서는 9모음 (표 1)을, 그리고 젊은층은 7모음 체계 (표 2)를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25) 제주어 모음 체계

l /i/	— /i/	ɿ /u/		l /i/	— /i/	ɿ /u/
k /e/	ɿ /ə/	ɿ /o/		k /e/	ɿ /ə/	ɿ /o/
h /ɛ/	ɿ /a/	· /ɔ/		ɿ /a/		

<표 1>

<표 2>

모음 형판을 이용한 변이형들은 대비되는 모음간의 f0 차이를 이용한 리듬감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리듬을 형성하는 음향학적 신호들중의 하나인 기본주파수(f0)와 모음 포먼트 (F1, F2)는 전후설성 및 고모음성에 따라 각각 다르다. 다음은 영어(Yang, 1996; Assmann and Katz, 2000), 서울 한국어(손형숙, 안미애, 2009), 제주 한국어 (신우봉, 신지영, 2012)

일부 모음의 기본주파수와 포먼트값이다.

<표 3> 4 모음 기본주파수 및 포먼트

		Yang, 1996	Assmann & Katz, 2000	손형숙, 안미애, 2009	신우봉. 신지영, 2012*
[i]	f0	221	216	-----	-----
	F1	390	429	435	282
	F2	2826	2588	2220	2241
[æ]	f0	209	199	-----	-----
	F1	825	837	585	582
	F2	2059	2051	2280	1951
[o]	f0	207	201	-----	-----
	F1	528	636	524	352
	F2	1206	1470	1093	747
[u]	f0	214	207	-----	-----
	F1	491	516	439	285
	F2	1486	1685	1450	801

*70대 제주 원어민 남성 화자

** 단위: Hz (서울어 및 제주어는 기본주파수 정보가 없음)

제주 한국어에서는 인지 청각 측면에서 기본 주파수(f0) 차이뿐만 아니라, F1 및 F2 차이도 이용함으로써, ‘고모음-비고모음’ 혹은 ‘전설모음-후설모음’ 사이의 스펙트럼 신호 대조를 유발하여 인지 측면에서 리듬감을 유발하고 있다. 즉, 제주어의 반복 부사어 변이형들은 전설-후설과 저모음-고모음 사이에 기본주파수 및 포먼트의 음향 신호 차이를 유효적절하게 구사하고 있고, 이는 중첩어 형판내의 모음과 모음사이에 리듬감을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모음과 모음사이의 기본주파수와 포먼트 구조 차이는 발화/인지상 리듬감을 형성한다 (Flemming, 2005).

이러한 모음에 구현되는 리듬감을 살리기 위하여 제주어의 완전 중첩어는 입력형과 출력형에서의 모음 교체를 실현한다. 전설-후설 모음 교체형에는 /i:/i/, /o:/i/, /a:/æ/, /u:/i/ 등이 있고, 저모음-고모음 교체형에는 /a:/o/, /o:/u/, /a:/i/, /a:/ə/ 등이 있다.

3.2.1. 전설-후설(혹은 후설-전설) 교체

입력형 어간의 한 음절(주로 첫째 음절)이 전설-후설, 혹은 후설-전설 교체를 통하여, 출력형 어간의 모음 대조를 통하여 음상 강화를 추구한다. 대체적으로 후설모음이 기본형으로 보인다.

(26) /i/: /i/	슬각슬각 슬긋슬긋 슬강슬강	실각실각 실긋실긋 실강실강
(27) /o/: /i/	곰작곰작 동글동글 공글랑공글랑	금작금작 등글등글 궁글랑궁글랑
(28) /a/: /æ/	자글자글 방삭방삭 항글랑항글랑 파글락파글락	재글재글 뱅삭뱅삭 행글랑행글랑 패글락패글락
(29) /u/: /i/	북작북작 무랑무랑 불락불락 주춤주춤	빅작빅작 미랑미랑 빌락빌락 주침주침

그러나 명확히 전설-후설, 혹은 후설-전설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 교체형에는 고모음-저모음 (혹은 저모음-고모음 교체)도 동시에 일어난다. 이 교체형에는 대체적으로 후설모음이 기본형으로 보인다.

3.2.2. 저모음-고모음 (혹은 고모음-저모음) 교체

입력형 어간의 한 음절이 출력형 어간의 저모음-고모음 교체를 통하여, 음성 강화를 추구한다. 대체적으로 저모음이 기본형으로 보인다.

(30) /a/: /o/	팍삭팍삭 바각바각 살락살락	폭삭폭삭 보각보각 술락술락
(31) /o/: /u/	불딱불딱 포근포근 보각보각 고실락고실락	불딱불딱 푸근푸근 부각부각 구실락구실락

(32) /a/: /i/	비잘비잘 잔득잔득 파지직파지직	비질비질 진득진득 피지직피지직
(33) /a/: /ə/	두상두상 꿀깍꿀깍 간들간들 듬상듬상	두성두성 꿀꺄꺄꺄 건들건들 듬성듬성
(34) /a/: /u/	게작게작 발탕발탕 자르탁자르탁	게죽게죽 불탕불탕 주르탁주르탁
(35) /ɔ/: /i/	든직든직 들씩들씩 즐강즐강	든직든직 들씩들씩 질강질강

그러나 명확히 저모음-고모음, 혹은 고모음-저모음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 교체형에는 전설-후설 (혹은 후설-전설 교체)도 동시에 일어난다. 이 교체형에는 대체적으로 후설모음이 기본형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완전 반복 부사어는 입력형과 출력형 사이의 자음 교체(두자음, 말음, 자질 교체), 그리고 모음 교체를 통하여 입력형과 출력형 사이의 이형태를 통하여 그리고 출력형과 출력형 사이의 동형태를 통하여 완전 중첩어의 음상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 음상 강화 기제는 자음교체를 통한 형판 길이 확장과 자질 및 모음 교체를 통한 리듬감 확보가 결정적인 동인으로 보인다.

4. 유사 중첩어

입력형의 어간과 출력형의 어간이 동일하지만, 출력형내의 어간과 중첩사가 다른 경우를 유사 중첩어라고 한다. 출력형내의 다른 형태에 대해서는 송정근(2010)에서는 유사 중첩어는 정도성(intensity), 정철주(2015)에서는 상태성(statement)과 지속성(continuity)과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하는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 중첩어의 변이형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기제가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사 중첩어는 중첩어 자체의 어간과 중첩사 관계의 판단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36) 가. 본숭만숭, 업곡안곡, 즉금살금
 나. 실룩셀룩, 심숭삼숭, 외삭바삭
 다. 이영저영, 들멍날멍, 왓닥갓닥

(36가)는 일차적으로 ‘본숭+만숭, 업곡+안곡, 즉금+살금’으로 분석을 시도할 수 있으나, 여기서 분석된 ‘본숭, 만숭, 업곡, 안곡, 즉금, 살금’ 등의 성분은 어느 단어가 어기이고, 혹은 중첩사인지 파악할 수 없을뿐더러, 이 분리된 단어들이 홀로 의미를 지닌 단어인지 알 수 없다. 이 경우는 단일어로 볼 수밖에 없다.

(36나)는 (36가)와는 달리 분리된 구성성분이 너무 명확하다. 즉, 이 중첩어들은 ‘실룩 + 셀룩, 심숭 + 삼숭, 외삭 + 바삭’로 모두 어간으로서 각각의 중첩어를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룩실룩, 셀룩셀룩, 심숭심숭, 삼숭삼숭, 외삭외삭, 바삭바삭’ 등의 반복 중첩어로 사용이 가능하다.

(36다)는 ‘이렇다-저렇다, 들다-날다, 왔다-갔다’의 반의관계에 있는 단어들에 ‘/ng/, /k/’과 같은 어기-중첩사 연결 성분이 결합한 것으로 분석되는 단어들이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유사 중첩어의 지위에 대하여 여러 주장들이 존재하였다. 이익섭(1982)은 (36가)는 반복 합성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36가, 다)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남기심, 고영근(1993)은 (36다) 경우는 반복 중첩어의 예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36가)와 같은 단일어로 형성된 중첩어를 제외한 (36나)나 (36다)와 같은 유사 중첩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가설은 유사 중첩어는 전형적인 완전 중첩어의 일종일 뿐더러, 음상 강화의 또 다른 형태라는 점이다. 자음교체와 모음교체 자료를 통하여 이를 입증하려고 한다.

4.1. 자음 교체

출력형내의 어간을 복사한 중첩사가 일부 음절 두음 자리에 자음을 첨가하는 것은, 출력형내의 어간과 중첩사의 사이에 ‘피치 차이’를 극대화하려는 인지상 전략이다(Boersma, 2000). 이런 유형의 중첩어는 출력형의 어간과 중첩사 사이에 \emptyset : /k/, \emptyset : /h/, \emptyset : /p/ 등의 비대칭을 이룬다.

- (37) \emptyset : /p/
- | | | | |
|------|------|------|------|
| 어장바장 | 어삭바삭 | 어상바상 | 어씩바씩 |
| 왈탕발탕 | 외삭바삭 | 어근버근 | 악담부담 |
| 이숫비숫 | 을긋블긋 | 울통불통 | 어숙미숙 |

(38) ø: /t/

오순도순	왓각들각	오론도론	올랑들랑
우들투들	어틀다들	알승달승	아리다리
와각대각			

(39) ø: /k/

오장간장	아롱고롱	왓강달강	알롱달롱
와랑과랑			

(40) ø: /c/

이제저제	이레저레	이몽지몽	율통절통	왓닥갓닥
우묵주묵	외삭바삭	오진조진	우물쭈물	웅기중기
왓각잘각				

(41) ø: /s/

울멍실멍	울쨍실쨍
------	------

(42) /ㅎ/: /m/

홍당만당	흔들만들	홍창만창	홍글망글
------	------	------	------

중첩사 자음에 유기음이나 경음을 첨가하는 것은 출력형내의 어기와 중첩사간의 구간길이나 f0차이를 이용한 OCP(obligatory contour principle)를 구현하기 위함이고, 이는 유사 중첩어의 리듬감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 이 OCP는 출력형에서 두 개의 동일한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것을 의미한다. 즉 자음교체에서는 어기와 중첩사사이에 ‘자음 구간’ 및 ‘기본 주파수(f0)’ 차이에 의한 OCP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4.2. 모음 형판

연구자가 제주어 관련 사전 및 직접 채집을 통한 유사 중첩어 573 어휘 조사에 의하면, 유사 중첩어에서 어간과 중첩사 사이에 모음을 동일하게 하고 자음을 달리함으로써 생성하는 유사 반복어가 435어휘인 76%로 다수를 차지하며, 나머지 138어휘인 24%는 모음을 달리하고 자음을 동일하게 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따라서 출력형내의 어간과 중첩사간의 이형태(유사 반복 부사어)는 모음인 경우 동일형을 유지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4.2.1. 동일형

(43) /u/: /u/

우묵주묵 우물쭈물 울퉁불퉁 우들투들 우릉우릉

(44) /ə/: /ə/

엄방덤방 어상바상 얼금설금 어근버근

(45) /a/: /a/

왓닥갓닥 외쌍파쌍 왈강달강 왈각달각
 왈탕발탕 외삭바삭 왈각질각 왈그랑달그랑
 아릿자릿 왈탕발탕 외삭바삭 외쌍파쌍
 알룽달룽 왈각잘각 아깃자깃
 와랑과랑 왓닥갓닥 갈판말판 아리다리 알송달송

(46) /o/: /o/

오진조진 옹기종기 올롱출롱 오순도순 오골오골

(47) /e/: /e/

게고제고 그제저제

(48) /i/: /i/

으삭으삭 으실으실 을강을강 을근을근

4.2.2. 이형태

이 이형태 유사중첩어는 어기와 중첩사가 각각 독립된 구성성분으로도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어기와 중첩사내의 인접 음절 모음끼리 이형태 짝을 이룬다는 점이다.

(49) /ə/: /a/

어삭바삭 어장바장 어상바상 얼크락달크락 어틀다틀
 어듬더듬 어틀다틀 얼룩덜룩 얼통달통 어씩바씩

(50) /i/: /ə/

이짱저짱 이제저제 이레저레 기영저영

(51) /i/: /a/

홍당만당 흔들만들 홍창만창 홍글망글 들곰날곰

(52) /a/: /i/

와랑치랑 왕강싱강 왈랑밀랑 어근비근 차일피일

(53) /a/: /o/

왈각들각 아롱고롱 오른도론

(54) /o/: /a/

오장간장 오그랑다그랑 본숭만숭

여기와 중첩사간의 모음이 이형태로 이루어진 경우는 두 개의 구성성분이 독립된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어삭바삭’인 경우 ‘어삭’과 ‘바삭’이 독립된 어간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도 음상강화형 범주에 넣는 것은 이런 유형들도 제주어에서 흔히 관찰되는 변이형들이기 때문이다. 현평효(1985)는 제주어 연구에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등에 보이는 모음 교체형을 20개, 자음 교체형을 6개로 분류하였다. 제주어의 유사 강조 중첩어에 속하는 이 6개의 변이형도 여기에 속해있다. 결론적으로, 유사 강조형의 여기와 중첩사는 모음 형판인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리듬감을 유발하는 출력형내의 OCP는 여기와 중첩사간의 자음을 탈락 혹은 첨가시킴으로서 생긴다고 할 수 있다.

4.3. 음절 첨가

입력형 어간에 ‘/lak/’ 혹은 ‘/lang/’을 붙여서 출력형 어간을 생성하는 중첩어는 입력형과 출력형 사이의, 어기/중첩사 구간 확장을 통한 음상 인지 강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음절 첨가형 중첩어는 음상 강화의 최정점으로 파악된다.

(55) 자울자울 자울락자울락
 지글지글 지글락지글락
 ㄱ슬ㄱ슬 ㄱ슬락ㄱ슬락
 흥글흥글 흥글락흥글락 흥글랑흥글랑
 베질베질 베질락베질락
 문들문들 문들락문들락 문들글락문들글락
 구물구물 구물락구물락

거들거들 거들락거들락 거들랑거들랑

‘락’이나 ‘랑’을 붙여서 음성 강화를 꾀하는 반복 부사어의 특징은 (1) 2음절 형판의 어기 말음에 ‘l’이 있고, (2) /lak/ 대신에 /lang/을 쓰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는 ‘lak/’을 /l + ak/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l/은 앞선 음절 종성자음 /l/의 복사음임을 알수있고, /ak/는 어기와 중첩사의 연결어미로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락’첨가 중첩어는 부분중첩어와 완전 중첩어가 결합된 혼합 중첩어로 기능한다.

제주어의 의성어 의태어의 종성 자음이 모라를 갖는다고 전제를 한다면, 그리고 공명도에 의하여 축음 ‘l’이 가장 강력한 운율 효과를 지닌다고 한다면, 말음 /l/인 경우만 복사되는 것은 ‘운율 강화’와 관련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의성어 의태어인 경우 /종성 l + 초성 l/인 겹자음 /ll/은 1 모라(μ) 이상의 모라 효과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는 운율 효과의 최대화를 의미한다.

5. 제주어 음성 강화형 중첩어의 최적성 이론 적용

MaCarthy and Prince (1995)의 대응이론은 어기와 중첩사의 입력형과 출력형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56) 기본 모형

$$\begin{array}{l}
 \text{Input: } /AfRED + \text{ Stem}/ \\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updownarrow \qquad \text{IO faithfulness} \\
 \text{Output: } /Reduplicant \leftrightarrow \text{Base}/ \\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text{BR Identity}
 \end{array}$$

중첩사(AfRED)는 입력형에서 추상적인 RED_i, RED_j, ...상태로 있다가 출력형에서 어기와의 대응관계로 음성내용이 구현되면서 중첩사(reduplicant)가 된다. 어간과 어기의 대응관계는 ‘입력형-출력형(input-output) 충실성’을, 어기와 중첩사의 대응관계는 ‘출력형-출력형 동질성’의 대응관계를 나타낸다. McCarthy & Prince (1995)는 세 가지 유형의 기본적인 제약들을 제시했다. (1) 입력형-출력형 관계에서 어기와 중첩사 사이의 대응을 확보하는 충실성 제약인 MAX-IO, DEP-IO, IDENT-IO, (2) 출력형-출력형 관계에서 입력형 어기와 출력형 어기의 대응에 적용하는 동질성 제약들인 MAX-BR, DEP-BR, IDENT-BR 등이 있고,

(3) 유표성 제약에는 NO-CODA, ONSET, RED= $\sigma\mu\mu$, STEM= PW , FT-BIN 등이 있다. 제주어 음상 강화 반복부사어 중첩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판의 크기, 모양, 그리고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

5.1. 2차 강화 유사 중첩어

이 장에서 언급하는 2차 강화 유사 중첩어란 1차 중첩어에서 2차로 음상 강화를 거친 출력형의 어기와 중첩사간의 다른 형태의 중첩어를 의미한다(예. 어상어상 → 어상바상). 2차 음상 강화형 반복 부사어의 유사중첩어는 어간(I)과 어기(O)는 완전 대응을 하지만, 어기(O)와 중첩사(R)는 음운제약 작용으로 불완전 대응을 한다. 유사 중첩어의 구체적인 제약의 정의와 순위는 다음과 같다.

(57) a. 제약

OCP: X와 Y가 각각 접사와 어간의 요소일 때 이들은 동일한 운율형판으로 서 인접할 수 없다. (Yip, 1998)

PHONO: 모음으로 시작하는 구성요소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구성요소에 선행한다. (전중호, 이혜민. 2006)

b. 제약 순위: DEP-IO, MAX-IO >> OCP, PHONO >> DEP-BR, MAX-BR

리듬감을 유발하는 유사중첩어는 어기와 중첩사간의 리듬감 유발을 위하여 필수굴곡 원리(obligatory contour principle)가 적용된다. 어기와 중첩어의 한 음절에서 어두 자질 첨가/탈락은 출력형(어기)-출력형(중첩사)사이, 혹은 출력형 어기(중첩사)형판내의 음절사이에서 OCP를 통하여 인지 차이를 극대화하는 전략인데(Boersma, 2000), 이 OCP가 출력형의 어기와 중첩사 형판내에서 경음화와 격음화현상을 불러일으킨다. 즉, 경음화는 음세기(loudness), 격음화는 음크기(amplitude) 차이를 통하여 OCP를 구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OCP는 출력형에서 두 개의 동일한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Leben, 1973; Goldsmith, 1976; McCarthy, 1986, 1994). Boersma (2000)는 최적성 이론에 OCP를 적용하면서, 출력형을 이끄는 특정 인지 음향 신호를 선호하는 충실성 제약을 제시하였다. 또한, OCP는 두 음향 신호의 최대 인지 차이가 출력형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명백히 제주 반복 부사어의 변이형은 인지상의 OCP 제약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 한국어에서 의성어 의태어 중첩 현상에 나타나는 유사 중첩어는 모음 선행 제약이 적용된다(전중호, 이혜민, 2006). 이는 제주 한국어에도 동일하게 작용한다. PHONO제약과

OCP 유표 제약이, 입력형의 접두사나 접미사의 완전한 출현을 보장하는 DEP-BR 혹은 MAX-BR 제약보다 상위에 위치함으로써 두자음 교체형 유사 중첩어를 생성한다.

(58) [əsang-əsang] → [əsang-basang] (어상어상: 어상바상)

/əsang + RED/	DEP-IO	PHONO	OCP	DEP-BR
a. $\left[\begin{smallmatrix} \text{어} \\ \text{상} \end{smallmatrix} \right] \text{əsang-basang}$				*!
b. bəsang-əsang	*!	*		*
c. əsang-əsang			*!	

위 표에서 적형어인 ‘어상바상’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구성요소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구성 요소에 선행한다는 PHONO제약과 출력형 ‘어상바상’의 어기 첫음절 ‘어’와 중첩사 첫음절 ‘바’ 사이에 VC-CVC의 구간길이 및 모음 포맷트 차이에 의한 OCP 제약을 만족시키고 있다. 만약 입력형 어간을 자음으로 시작하는 두 번째 형판이라고 본다면 다음 표처럼 MAX 제약이 더 적절하다.

(59) [golong-golong] → [along-golong] (고롱고롱: 아롱고롱)

/RED + golong/	MAX-IO	PHONO	OCP	MAX-BR
a. $\left[\begin{smallmatrix} \text{어} \\ \text{롱} \end{smallmatrix} \right] \text{along-golong}$				*!
b. golong-along	*!	*		*
c. along-along	*!		*	

따라서 유사 중첩어인 경우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PHONO제약과 OCP제약을 준수하는 후보가 승리한다.

5.2. 2차 강화 완전 중첩어

제주어의 음상 강화형 반복 부사어의 완전중첩어는 어간(I)과 어기(O)는 불완전 대응을 하지만, 어기(O)와 중첩사(R)는 완전 대응을 한다. 이 장에서 논의하는 완전 중첩어는 이미 1차 변화 과정을 거쳐서 2차 완전 중첩어를 형성하는 경우이다(예. 은질은질→근질근질). 구체적인 제약의 정의와 순위는 다음과 같다.

(60) a. 제약

ONSET (*[σV]): 음절은 두자음을 갖는다. (Itô, 1989)

OCP: X와 Y가 각각 접사와 어간의 요소일 때 이들은 동일한 운울형판으로

서 인접할 수 없다. (Yip, 1998)

CODA ([son]/o): 어기/중첩사의 최소 한 음절은 공명음 종성자음을 선호한다.

b. 제약 순위: MAX-BR(OO) >> ONSET (*[σV], OCP, CODA ([son]/o) >> MAX-IO

ONSET (*[σV]) 제약은 Arawakan 어를 포함하여 범언어적으로 매우 흔한 현상이다 (Kim, 1997). Arawakan어는 입력형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휘가 출력형에서 모음이 탈락하고 자음 음절로 시작한다.

(61) osampi-sampi
amina-mina
osangkina-sangkina

흥미롭게도 제주어는 유사 중첩어에서는 한국어 반복 부사어의 모음 음절이 자음 음절에 선행하는 PHONO 제약을 따르지만, 완전 중첩어에서는 자음 음절로 시작하는 ONSET 제약을 선호한다. 음절말에서는 어기/중첩사의 최소 한음절에는 공명음을 선호하는 CODA ([son]/o) 제약을 따른다. 그러나 유사 중첩어와 마찬가지로 완전 중첩어에서도 어기와 중첩사간 혹은 어기와 중첩사내의 두 음절 사이에 음성학적인 OCP가 적용된다. ONSET (*[σV]), OCP, CODA ([son]/o) 유표 제약이 출현하는 완전 중첩어는 두자음 교체(Type I), 자질교체(Type II), 말음교체(Type III), 모음 교체(Type IV)의 4종류의 중첩어 형태를 갖는다.

Type I 형태는 어기/중첩사가 두자음 음절로 시작하는 완전 중첩어를 선호하는 중첩어군이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을 선호하는 유사 중첩어와 달리, 제주어의 완전 중첩어는 어기 혹은 중첩사에 주로 유기음(/k/, /p/, /h/)으로 시작하는 두자음을 갖는다.

(62) Type I: [osil-osil] → [gosil-gosil] (오실오실: 고실고실)

Input:/osil-RED/ Output:/gosil-RED/	MAX-BR	ONSET (*[σV])	OCP	CODA ([son])/σ	MAX-IO
a. ¹ gosil-gosil			!		*
b. osil-osil		!	!		
c. gosil-osil	!				*

위 표에서 후보군 적형어인 ‘고실고실’은 출력형 음절은 두자음을 갖는다는 ONSET 제

약과 어기/중첩사 한 음절 중성에 공명자음을 선호하는 제주어 고유의 CODA 제약을 만족시키고 있다.

Type II 형태의 완전 중첩어는 입력형의 평폐쇄음에서 도출형이 경음화와 격음화를 유발하는 완전 중첩어이다. 이 형태는 출력형의 형판내에서 두 음절 사이(격음-평음, 혹은 경음-평음)의 피치 차이를 유발하는 OCP 제약을 만족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63) Type II: [gudil-gudil] → [g'udil-g'udil] (구들구들: 꾸들꾸들)

Input:/gudil-RED/	MAX-BR	ONSET (*[σV])	OCP	CODA ([son])/σ	MAX-IO
a. [☞] g'udil-g'udil					*!
b. gudil-gudil			*!		
c. gudil-udil	*!	*	*		

위 표에서 후보군 적형어인 ‘꾸들꾸들’은 어기 혹은 중첩어 형판내의 두 음절 사이에 경음-평음 대조를 통한 피치차이를 유발하는 OCP 제약을 만족시키고 있다.

Type III 형태는 출력형의 어기의 최소 한 음절에 공명음 /ㄹ/을 선호하는 제주어에만 나타나는 제약이다 (CODA ([son])/σ). 제주어의 반복 부사어의 어기와 중첩사는 중음절 형판을 가진다. 우리나라 말에서 음절말 위치에는 비음(ㅁ, ㄴ, ㅇ), 측음(ㄹ), 평파열음(ㄱ, ㄷ, ㅂ)만이 올 수 있지만, 제주어의 2차 음상 강화형 반복 부사어에서는 말음이 주로 비음과 측음인 /ㅇ/, /ㅁ/, /ㄹ/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중 /ㄹ/를 가장 선호한다. 이런 [+son]자질을 요구하는 말음인 경우 운율적인 모라(μ)제약이 개입되어 있고, 특히 /ㄹ/은 ‘락’ 삽입을 통하여 3차 음상강화를 시도할 때 중성자음 복사를 통하여 쉽게 그 의도를 만족시킨다.

(64) Type III: [tədak-tədak] → [təldak-təldak] (터닥터닥: 털닥털닥)

Input:/tədak-RED/	MAX-BR	ONSET (*[σV])	OCP	CODA ([son])/σ	MAX-IO
a. [☞] təldak-təldak					*!
b. tədak-tədak				*!	
c. təldak-tədak	*!				

위 표에서 후보군 적형어인 ‘털닥털닥’의 출력형 음절은 어기/중첩사의 최소 한 음절에서 공명음 ‘ㄹ’삽입을 선호하는 CODA 제약을 만족시키고 있다. 또한, 어기/중첩사 형판내 두 음절 사이의 중성 ‘ㄹ’과 ‘ㄱ’의 ‘공명도’ 대조를 통한 OCP제약을 만족시키고 있다.

Type IV는 입력형-출력형의 형판에서 전설모음이 후설 모음으로, 그리고 저모음이 고모음으로 교체된다. 이 교체된 출력형의 어기와 중첩사 관계를 살펴보면 모음사이의 포먼트 대조가 발생하는 OCP제약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5) Type IV: [sallag-sallag] → [sollag-sollag] (살락살락: 솔락솔락)

Input: /sallag-RED/	MAX-BR	ONSET (*[oV])	OCP	CODA ([son])/σ	MAX-IO
a. ☐sollag-sollag					*!
b. sallag-sallag			*!		
c. sollag-sallag	*!				

위 표에서 입력형 ‘살락살락’은 형판내의 모음간 ‘아:아’의 OCP 대조를 이루지 못하지만, 출력형 ‘솔락솔락’의 어기와 중첩사 형판내의 두 음절의 모음사이 (‘오:아’)는 서로 다른 형태의 모음 포먼트 구조 (F1, F2, F3)를 가짐으로써, 음절 차이에 의한 OCP 제약을 만족시키고 있다.

5.3. 3차 음상 강화 완전 중첩어

‘동골동골 (1차 강화) >> 동골동골 (2차 강화) >> 동골락동골락 (3차 강화)’의 예에서 보듯이 ‘락’ 첨가형 반복복사어는 음상 강화형의 최적점이다. 2차 음상 강화 완전 중첩어와 다른 점은 (1) 입력형 중첩어의 어기 말음에 ‘ㄹ’을 가져야 하며, (2) 어기와 중첩사가 ‘락(랑)’ 첨가로 3음절을 가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락’은 /l + ak/로 구분이 가능하고 두자음 /l/은 선행음절 종성 ‘ㄹ’에서 복사되었음을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락’ 첨가 완전 중첩어는 부분중첩과 완전 중첩의 두 가지 성격이 혼합하여 나타난 것이다. 우선 입력형 ‘동골’에서 출력형 ‘동골락’으로 바뀌는 것은 ‘ㄹ’ 복사 제약, 위치제약, 음절수 제약이 필요하다.

(66) a. 제약

$Afx \leq \sigma$: 접사의 음운 내용은 일음절을 넘어서는 안된다. (강옥미, 1996)

Align-R/ σ : 출력형 어기/중첩어의 오른쪽에 음절을 삽입하라.

Max(σ]w): 삽입하는 출력형 어기/중첩어말에 최대 한 음절이다.

b. 제약 순서

MAX-BR(OO) >> $Afx \leq \sigma$, Align-R/ σ , Max(σ]w) >> MAX-IO

범언어적으로 삽입사의 크기는 한 음절이나 한 음보처럼 운율적인 요소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강옥미 1996). 예를 들어 Lakhota어에서는 pa-, na-, yu-, ka-, ki-처럼 CV형 음

절로 삽입되며, Yiddish어 에서는 *an-, um-, unter-, iber-*처럼 한 음보를 삽입한다. 제주어 에서는 어기말 종성 모라 'ㄹ'과 연결된 '락'(혹은 '랑') 이라는 1 음절삽입이 이루어진다. 이는 모라를 가진 앞선 음절 종성 'ㄹ'이 모라를 가질 수 없는 '락'의 초성 'ㄹ'로 연결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증거로는 '락(혹은 랑)'을 갖는 3음절 완전 중첩어는 이전 단계에서 모두 종성 'ㄹ'을 가진다.

- (67) 자울자울 자울락자울락
- 지글지글 지글락지글락
- ㄱ슬ㄱ슬 ㄱ슬락ㄱ슬락

이는 입력형 어기 종성의 모라를 최대로 확장하여 출력형 '락'의 초성 '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A_{fx} \leq \sigma$ 제약은 모라를 가진 앞선 음절말 종성이 모라를 가질 수 없는 다음 음절 초성에 한 음절 범위내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락' 일음절 삽입에 관련된 제약은 $Max(\sigma|w)$ 이고, 이 삽입사는 입력형 오른쪽에 위치하는 $Align-R/\sigma$ 제약이 관여한다.

(68)[dongkol-dongkol] → [dongkollak-dongkollak](동콜동콜: 동콜락동콜락)

Input:/dongkol-RED/ Output:/dongkollak-RED/	MAX-BR	$A_{fx} \leq \sigma$	$Max(\sigma w)$	$Align-R/\sigma$	MAX-IO
a. \rightarrow dongkollak-dongkollak					*!
b. dongkolak-dongkollaklak		*!	*		
c. dongkol-dongkol	*!	*	*	*	

제주어의 3차 음성 강화형 반복 부사어의 완전 중첩어는 $A_{fx} \leq \sigma$, $Align-R/\sigma$, $Max(\sigma|w)$ 제약을 통하여, 어기 및 중첩사 오른쪽에 'ㄹ' 초성을 갖는 '락'을 삽입하여 최적점의 음성 강화를 피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2차 완전 중첩어와 3차 완전 중첩어는 완전히 다른 제약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3차 중첩어는 부분 중첩어('ㄹ')와 완전 중첩어가 동시에 구현되기 때문이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제주어에 나타나는 음성 강화 반복 부사어의 완전 중첩어와 유사 중첩어를 입력형과 출력형, 출력형과 출력형 관계에서 해석했다. 완전 중첩어는 출력형내에서는 동

질성제약을 만족시키지만, 입력형과 출력형관계에서는 ‘형판 길이 확장’과 ‘리듬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충실성 제약을 위반한다. 완전 중첩어 형성에는 범언어적인 OCP 및 ONSET 제약과 제주어 고유의 CODA 유표 제약이 출현하여 2차 3차 음상강화형 완전 중첩어를 실현한다. 이 CODA 제약은 운율적인 강화를 피하는 모라실현과 관계가 있었다.

유사중첩어는 출력형내의 모음 형판을 유지하면서 어기와 중첩사간의 구간길이 차이와 f0 대비를 통한 음상 강화를 추구한다. PHONO제약과 OCP 유표 제약을 통하여, 출력형내의 중첩사는 두음 첨가, 말음 첨가, 자질 변이형에서는 격음화, 경음화등의 음운 규칙이 나타난다. 제주어에 나타나는 음상 강화형 반복 부사어는 입력형-출력형과 출력형-출력형 관계의 유표 제약을 통하여 음상 강화를 피하고 있다. 끝으로, ‘락’ 첨가 3차 음상 강화형 완전 중첩어를 통하여 OT-CC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2차 완전 중첩어를 거쳐서 3차 완전 중첩어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제약 적용의 순서상 Prec 제약이 필요하다는 의미하며, 이는 차후 연구로 미룬다.

참고문헌

- 강공택. (1986). *제주 방언의 반복 부사 구조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석한. (2010). 제주 한국어의 반복 부사어 변이형 형성에서의 발화와 인지요소 연구. *영주어문*, 20, 5-26.
- 강옥미. (1993). 운율어 내에서 일어나는 한국어 음운현상. *어문논집*, 3, 11-22.
- 강옥미. (1998). 한국어의 부분중첩에 대한 대응이론 분석. *음성음운형태론연구*, 4, 31-54.
- 강정희. (2005). *제주 방언 형태 변화 연구*. 서울: 역락출판사.
- 고동호. (1996). 제주 방언의 유기음과 경음의 형성 과정. *한글*, 234, 163-189.
- 김광웅. (2001). *제주지역어 음운론*. 제주: 제주대학교 출판부.
- 김영돈. (1965). *제주도 민요연구(상)*. 서울: 일조각.
- 남기심, 고영근. (1993).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 박동규. (2000). 어두 자, 모음 대립형 반복 복합어의 형성에 관한 고찰. *인문과학연구*, 5, 75-95.
- 박용후. (1988). *제주방언 연구 <자료판>*.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소.
- 박종희, 권병로. (2010). 음절 무게 투영과 겹자음화. *배달말*, 47, 93-114.
- 송상조. (2007). *제주말 큰 사전*. 서울: 한국문화사.
- 송정근. (2010). 중첩의 두 유형. *한국어 의미학*, 33, 131-152.
- 손형숙, 안미애. (2009). 한국어와 영어의 모음 발음영역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언어과학연구*, 49, 117-140.

- 신우봉, 신지영. (2012). 제주 방언 단모음에 대한 음향 음성학적 연구. *한국어학*, 56, 63-90.
- 이경희, 정명숙. (2000). 한국어 과열음의 음향적 특성과 지각 단서. *음성과학*, 7(2), 154-170.
- 이익섭. (1982). 현대국어의 반복복합어의 구조. *국어학연구(백영정명옥선생 환갑기념논총)*. 서울: 신구문화사
- 이희승. (1955). *국어학개설*. 서울: 민중서관
- 전종호, 이해민. (2006). 한국어 부분중첩에서의 가변적 접사. *음성음운형태론연구*, 12(1), 149-159.
- 정철주. (2015). 의사 반복 합성어의 유형과 형성. *인문과학연구*, 26, 69-96.
- 제주특별자치도. (2009). *제주어사전*. 제주: 일신옵셋인쇄사.
- 채완. (1986). *국어어순의 연구*. 서울: 탑출판사.
- 현용준. (1980).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서울: 신구문화사.
- 현평효. (1985). *제주도 방언 연구*. 서울: 이우출판사.
- Alber, B. (2005). Clash, lapse and directionality. *Natural Language & Linguistic Theory*, 23(3), 485-542.
- Assman, W. F., & Kartz, W. F. (2000). Time-varying spectral change in the vowels of children and adults.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102, 28-40.
- Balle, M. (2017). *Types of reduplication in Helong, an Austronesian language in Eastern Indonesi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ayap University.
- Boersma, P. (2000). *The OCP in the perception grammar*. University of Amsterdam. Retrieved from http://www.fon.hum.uva.nl/paul/papers/ocp_perc.pdf.
- Flemming, E. (1996). Evidence for constraints on contrast: The dispersion theory of contrast. *UCLA Working Papers in Phonology*, 1, 86-106.
- Flemming, E. (2005). Speech perception and phonological contrast. In D. Pisoni & R. Remez (Eds.), *The handbook of speech perception* (pp. 156-181). Cambridge: Blackwell.
- Itô, J. (1989). A prosodic theory of epenthesis. *Natural Language & Linguistic Theory*, 7(2), 217-259.
- Goldsmith, J. (1976). *Autosegmental phonolog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T.
- Hayes, B. (1989). Compensatory lengthening in moraic phonology. *Linguistic inquiry*, 20(2), 253-306.
- Kang, S-H. (2008). Non-morphological motivation in Cheju Korean emphatic reduplication. *Proceedings in ICKL 2008*. Cornell University.

- Kang, S.-K. (1992). *A moraic study of some phonological phenomena in English and Kore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Kim, J.-H. (1997). An optimality-theoretic approach to reduplication in Korean ideophones. *Language Research*, 33(4), 737-752.
- Leben, W. (1973). *Suprasegmental phonolog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T.
- Lee, J.-S. (1992). *Phonology and sound symbolism of Korean ideophon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 MacCarthy, J. (1986). OCP effects: gemination and antigemination. *Linguistic Inquiry*, 17, 207-263.
- McCarthy, J. J., & Prince, A. (1995). Faithfulness and reduplicative identity. *Linguistics Department Faculty Publication Series*, 10, 1-126.
- Marantz, A. (1982). Reduplication. *Linguistic Inquiry*, 13, 435-482.
- Silva, D. J. (2006). Acoustic evidence for the emergence of tonal contrast in contemporary Korean. *Phonology*, 23, 287-308.
- Yang, B. (1996). A comparative study of American English and Korean vowels produced by male and female speakers. *Journal of Phonetics*, 24, 245-262.

강석한

27478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268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교양대학 조교수
전화: (043)840-3395
이메일: kangs45@kku.ac.kr

Received on July 30, 2018

Revised version received on September 21, 2018

Accepted on September 30, 2018